

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

기술 수준을 높이고 고급인력과 생산력 향상하는 것, 즉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이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입니다.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.

여러분 반갑습니다. 참 기쁩니다. 그러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해서 계속 1등 할 수 있는지 참 장하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의 밑천입니다. 지금은 투자유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투자 유치할 때 큰소리칠 수 있게 됐습니다. 참 감사합니다. 나중에 말씀 듣고 마지막에 당부하겠지만 정말 장하고 존경스럽습니다. 하나 걱정인 것은 계속 우리가 우승을 독차지하면 대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. 없어지면 한국이 계속 유치하겠습니다. 그 걱정 말고는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

(미용분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대표(허지영)의 예를 들어) 미용이 옛날에는 남의 머리 만져주는 것이었지만 요즘에는 예술영역으로 격상된 것 아닙니까. 봉사와 예술이 원론적으로 차이가 없고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보람은 다를 것입니다. 영역을 뛰어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창조적 봉사를 하다가 조직화해 기업을 한다든지 기술에서 예술로 예술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끊임없이 개발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. 기능인들이 길을 열도록 사회가 준비하고 받쳐줘야 합니다. 여러 방

면에서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 보겠습니다.

한국의 발전전략은 첫째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. 시장개혁, 경제제도 개혁, 사회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 혁신을 해야 하고, 다음으로 동북아시아 개막과 지방화입니다. 기술은 단순한 손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발전되고 종합된 기술입니다. 이공계가 여러 측면에서 불리합니다. 자신감 갖도록 이공계를 공직에서 우대하고 행정기회를 높이도록 계획에 착수했습니다. 몇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시간이 걸립니다. 중소기업도 기술수준을 스스로 높이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합니다.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대학연구시설과 기업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세제혜택과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. 기존의 영역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.

세상은 빨리 변합니다.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있지만 이 사회 여건과 분위기는 바뀝니다. 어떻게 보면 전망이 있습니다. 정부도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. 이공계를 나온 사람들이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돕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. 효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세상은 분명히 변합니다. 여러분이 노력하고 제안하면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우수기업의 경영자 대부분은 이공계 출신입니다. 금융 법률서비스 회계 컨설팅 등 다른 영역이 크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 긴 기간 동안 2차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지배해 나갈 것입니다. 5년 만에 완결할 순 없지만 이 기간에 이공계가 훨씬 유리하게 가도록 제도개혁을 해놓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